

제 95 回

1月 11日,

- … 본회가 주최한 제95…○
- … 회 발명교실이 지난…○
- … 1월 11일 발명장려관…○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매월 둘째 토요일 오…○
- … 후 1시 30분에 개최…○
- … 되는 발명교실은 이…○
- … 달에도 1백여 명이…○
- … 참석하여 성황을 이…○
- … 루었다. 이날 발명교…○
- … 실에서는 타-스 유…○



시멘트 방수제 발명가 타-스 유기화학 김준현 사장

타-스 유기화학의 김준현 사장은 인체에 해가 없는 무독성 방수제를 개발, 시멘트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89 뉴욕전시회 준대상, '89 서독전시회 금상, '89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상, '91 제네바발명전시회 금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김사장은 맨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5 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성공적 발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사장이 무독성 방수제의 개발을 시작한 것은 건축용 방수제를 생산하고 있는 친지가 원인 모를 만성 피부염으

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건축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용 방수제는 세탁비누를 녹인 물에 중금속을 다량으로 섞은 것과 규산소다에 중금속을 함유시킨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종류의 방수제는 시멘트와 작용하여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중금속 오염 등 인체에 해를 끼친다. 또한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방수 효과를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이런 유해한 방수제가 40여 년 동안 인기를 얻으며 건축공사에 사용되고 있었고 지금도 방수제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여 시공후 1~2년이 지난 뒤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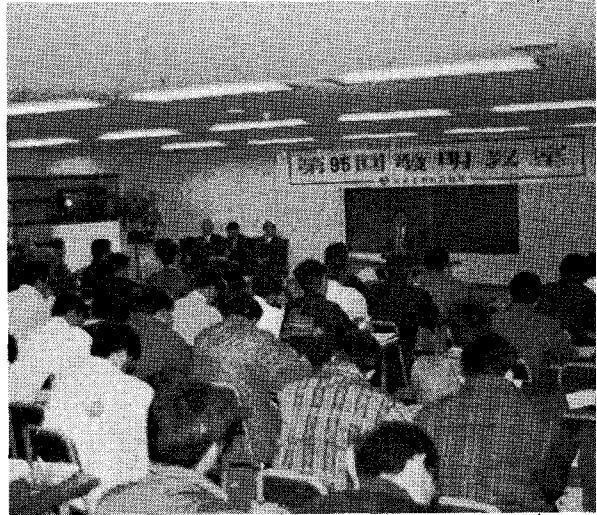
“당시 쓰이던 방수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무해 무독성이고, 고도의 방수성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수제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사장이 무독성 방수제의 개발을 위해 처음 시작한 작업은 시멘트의 성질과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시멘트에 대해 전혀 몰랐던 김사장으로서는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였다.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기화학 김준현 사장 …○
- … 의 성공사례 발표에 …○
- … 이어 金寬衡 본회 상 …○
- … 균 이사의 「발명의 …○
- … 창출과 사업」에 대한 …○
- … 강의와 洪載日 변리 …○
- … 사의 「산업재산권제」…○
- … 도」에 대한 강의와 …○
- … 토론이 있었다. 발명가 …○
- … 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
- … 소개한다.〈柳泰洙 記〉…○



1차 연구작업이 끝나자 이번에는 방수물질을 조사하고 수집해서 시멘트와의 친화성, 결합성을 연구하였다.

“방수물질을 조사, 수집한 것을 책으로 쓰면 아마 10여 권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조사와 수집 덕분에 여러가지 실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지요.”

방수성과 독성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제품을 개발한 김사장은 다시 7년에 걸쳐 현장 실험을 했다.

“콘크리트는 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장마철에는 방수성 결여로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을 주거로 하는 경우 항상 실내습도가 높게 되고, 건조기에 는 실내공기 중의 수분을 시멘트 벽면이 흡수하여 항상 건조한 상태가 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지요.”

김사장의 연구는 놀라웠다. 제조업자의 무지에 의해 제조된 적절치 못한 방수제를 사용했을 경우 유독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공기 중의 수분이 촉매역할을 하여 시멘트 벽면은 유독성 가스를 내뿜는 2차적 독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물탱크에 시공하였을 때는 중금속 또는 기타 화학물질이 물 속에 용해되어 사람이 마시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76년부터 시작된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무독성 방수제를 개발, 특허등록을 받아낸 김사장은 87년에 자본금 2천 5백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부인과 함께 손이 불어터질 정도로 일한 김사장은 처음 투자한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25억이라는 막대한 연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김사장의 철학으로, 연간 25억 매출이라는 경이적인 액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의 공장에는 고작 네명의 종업원만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김사장의 또 다른 철학은 기술개발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최대의 무기라는 것이다. 연구개발비가 매출총액의 15%나 차지할 정도로 김사장의 기술개발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다.

“상호와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운 것을 생각하다가 타-스로 정했어요. 물에 타서 쓴다는 뜻으로 지은 겁니다.”

올해 3월이면 12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건물에 입주하게 될 김사장은 1+1은 둘이 아니고 발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